

2024년 가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주요 중점들 —
갈라디아서

메시지 14

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려 영원한 생명을 거둠

성경: 갈 6:7-10, 고후 9:6, 막 4:26-29

- I. 주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사실 때, 씨 뿌리는 분으로서 생명의 씨와 하나님의 왕국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뿌리셨다 — 막 4:26-29.
- A.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으로 뿌려진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— 막 4:26-29.
 - B. 이것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씨의 비유에서 계시된다.
 - 1. 26절에 나오는 사람은 씨 뿌리는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써, 그분의 말씀(막 4:14) 안에서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뿌리신다. 그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라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며 우리 속에서부터 표현되시기 위한 것이다.
 - 2. 이 씨는 주님의 믿는 이들 안으로 뿌려진 신성한 생명의 씨이다 — 요일 3:9, 벤전 1:23.
 - 3.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, 싹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성숙하여 수확을 산출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임을 가리킨다 — 막 4:26.
 - 4.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믿는 사람들 안으로 뿌리심으로 왕국을 세우시는 것은 왕국을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다.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문제이지 우리의 일의 문제가 아니다 — 벤전 1:23, 요일 3:9, 마 13:8.
 - 5. 거둢남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이다 — 요 3:3, 5, 벵후 1:3-11.
- II.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를 아우른다 — 마 13:3, 37, 막 4:3.
- A. 씨를 뿌리는 것은 어떤 것이 자라서 결국 거둢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
 - B.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뿌리거나 아니면 그 영을 위하여 뿌리는 것이다.
 - 1. 육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씨를 뿌린 결과는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다.
 - 2. 그 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씨를 뿌린 결과는 생명, 곧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것이다 — 갈 6:7-10.
 - C. 우리의 생활과 일과 행동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.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.
 - D. 인간 생활은 씨를 뿌리는 생활, 곧 자라서 수확할 것을 내는 생활이다 — 마 13:37.
 - E. 두 종류의 뿌림이 있다.
 - 1. 한면으로 우리는 육체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육체에 이르도록 씨를 뿌릴 수 있다. 다른 면으로 우리는 우리의 목표이신 그 영과 함께 그 영에 이르도록 씨를 뿌릴 수 있다.
 - a.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 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신다.
 - b.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다.
 - c.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영은 우리가 살고 행하게 하신다.

- d.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 영은 우리의 표적과 목표를 위한 것이다.
 - 2. 육체에 이르도록 씨를 뿌린다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, 즉 육체가 탐내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다.
 - 3. 그 영에 이르도록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 영을 위하여, 즉 그 영께서 갈망하시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다.
 - 4. 바울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, 우리라는 존재로 씨를 뿌린다.
 - 5. 우리의 목표이신 그 영은 그 영에 이르도록 씨를 뿌리는 것과 큰 관련이 있다.
 - 6.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심각한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.
 - a. 우리가 육체에 이르도록 씨를 뿌린다면 육체에 속하여 썩을 것을 거둘 것이다.
 - b. 우리가 그 영에 이르도록 씨를 뿌린다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수확을 산출할 것이다.
 - 7. 그 영께서 우리의 생명과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목표도 되셔야 한다. 우리의 목표는 육체나 그 영 둘 중 하나일 뿐,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.
 - 8. 그 영에 이르도록 씨를 뿌리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생명 안에서 교통하여 다른 이들을 함양하는 것을 포함한다.
 - 9. 그 영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될 것이다.
 - 10.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반드시 그 영을 따른 행함이어야 하고 그 영에 이르도록 씨를 뿌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.
 - F. “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. 특별히 믿음의 가족에게 그렇게 합시다” — 갈 6:10.
 - 1. '믿음의 가족'은 약속의 자녀들(갈 4:28).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(갈 3:26).
 - 2.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는 함께 우주적인 가족, 곧 하나님의 대가족을 이루고 있다.
 - 3.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,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다.
 - 4. 이 가족은 새사람(골 3:10-11)으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로 이루어지는데, 그리스도는 이 모든 지체의 조성 성분이다.
 - 5. 그러므로 우리는 인종이나 사회적 계급에 관계없이 선을 행해야 하는데, 특별히 이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 — 갈 6:10, 3:28.
 - G. 그 영에 이르도록 씨를 뿌린 결과는 새 창조물이다 — 갈 6:15.
 - 1. 우리는 새 창조물을 위하여 그 영에 이르도록 씨를 뿌려야 한다.
 - 2. 우리가 그 영을 목표로 삼고 그 영에 이르도록 씨를 뿌릴 때 그 영께서 우리를 새 창조물로 만드신다.
- III. 고린도후서 9장 6절은** ”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,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.”라고 말한다.
- A. 여기서 바울은 씨를 뿌리는 것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것에 비유한다.
 - B.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위한 것이다.
 - C. 6절에는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씨를 뿌린다는 사상이 있다.
 - 1. 축복을 뿌리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뿌리는 것이다. 이것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축복을 뿌리는 것이다.
 - 2. 씨를 뿌릴 때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축복을 뿌려야 한다.
 - 3. 다른 이들을 위해 축복을 뿌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거둘 것이다.
 - D.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다 — 고후 7:9-11.